

세100플랜

내 삶의 힘, 100세 시대 은퇴파트너

2024 AUTUMN
VOL.47

AGENDA

열기가 식은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는 가을, 풍요로운
들녘이 미래를 반긴다

RETIREMENT

몸동스임과 적주 각 유지가 장터의 비결
기미 관리법, 치료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다

FINANCIAL

동해석우 연말 본격탐사... 대왕고래 시낭 나선다
부동산 시장을 좌우하는 '부동산 PF' 넌 누구냐?

HAPP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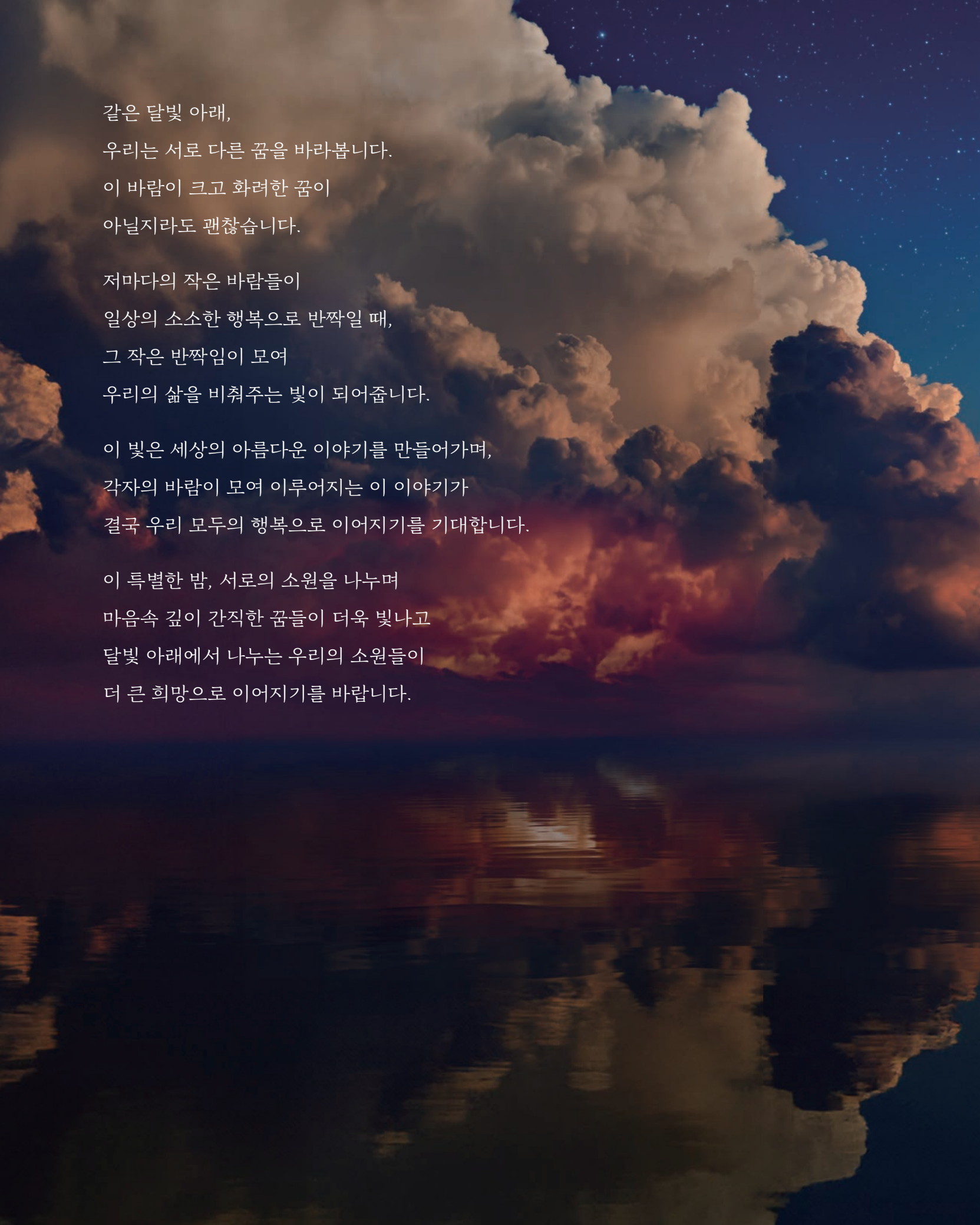
인터뷰 _ 국민배우 손숙
요리 _ 포슬포슬 맛있는 감자

별 주석의 소원은 내 조예 팀의 기쁨이구나!

같은 달을 보지만
소원은 저마다
다른 꿈으로 피어납니다.

모두가 크고 원대한
꿈을 꿀 필요도 없습니다
기쁨은 일상의 작은 바람들이
우리 삶에 빛나는
행복을 선물합니다.

다
메
럼
,
관
이
관
.



같은 달빛 아래,
우리는 서로 다른 꿈을 바라봅니다.
이 바람이 크고 화려한 꿈이
아닐지라도 괜찮습니다.

저마다의 작은 바람들이
일상의 소소한 행복으로 반짝일 때,
그 작은 반짝임이 모여
우리의 삶을 비춰주는 빛이 되어줍니다.

이 빛은 세상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며,
각자의 바람이 모여 이루어지는 이 이야기가
결국 우리 모두의 행복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 특별한 밤, 서로의 소원을 나누며
마음속 깊이 간직한 꿈들이 더욱 빛나고
달빛 아래에서 나누는 우리의 소원들이
더 큰 희망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CONTENTS

2024 AUTUMN VOL.47

All100플랜
2024년 가을 통권 47호

발행일 2024년 9월 2일
발행처 NH농협은행
발행인 은행장 이석용
편집책임 박현주
편집위원 이정은, 김훈식

제작 농민신문사
신고일 2012년 10월 19일
등록번호 서울중 바 00139

아트웍 지오커뮤니케이션

AGENDA

New Happiness 은퇴설계 행복하게

06

All 100 NEWS

08

열기가 식은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는 가을,
풍요로운 들판이 미래를 반긴다

10

금융

건물주보다 좋은 배당주로 노후자산관리 시작하기

12

세금

자녀를 위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하는 방법

14

부동산

미국 금융시장과 동조화 강해지는 서울 주택가격

16

은퇴전략

심과 여행이 공존하는 부다페스트 한 달 살기



18

시니어 취업

중장년 취업트렌드 2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20

골프

몸통 스윙과 척추 각 유지가 장타의 비결

22

건강

기미 관리법
치료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다

24

기자가 읽어주는 경제 1

동해석유 연말 본격탐사... 대왕고래 사냥 나선다

28

기자가 읽어주는 경제 2

부동산 시장을 좌우하는 '부동산 PF' 넌 누구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PF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32

법률 정보

저작권 침해에 대한 기초적 이해



24



28



34



38

34

여가&조이

인왕산과 북악산 자락을 끼고
도심 속 고즈넉함이 자리한다
- 취향 따라 걷는 서울 종로구 부암동 시크릿 산책

38

인터뷰

오십 넘어 천직 깨달아... 영원한 현역 꿈꿔요
- 국민배우 손숙

42

요리

포슬포슬 맛있는 감자

44

영화

눈을 감아도 보이는 것들
- 영화 <존 오브 인터레스트>가 남긴 질문들



QR코드를 스캔하면 NH농협은행 사보
All100클럽을 웹진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석용 NH농협은행장 “투자자문업, 고객중심의 자산관리 전문은행으로 도약 기회”

이석용 NH농협은행장은 7월 1일 투자자문업 도입 프로젝트 종료보고회를 통해 ‘투자자문업은 고객 중심의 자산관리’를 실현하는 것으로, WM사업부가 중심이 되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투자자문업에 진출함으로써 자산관리 역량의 근원적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자자문업 진출은 23년도 NH농협은행의 미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실시한 TF에서 도출된 과제로 24년 4월부터 외부 컨설팅을 통해 내부역량강화를 위한 절차에 착수해 왔다.



고객의 꿈이 이루어지는 AI펀드 투자 『NH로보드림』 출시

‘NH로보드림’은 NH농협은행에서 출시한 펀드 포트폴리오 추천 서비스로, 편리한 가입 절차를 통해 손쉽게 포트폴리오 투자를 시작할 수 있고 펀드추천부터 사후관리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당 서비스는 시장의 변화와 투자 모니터링을 통한 꼼꼼

하고 효율적인 자산관리를 특징으로 하며 8월 1일부터 9월 13일까지 신규 가입 고객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경품 제공 이벤트를 실시한다.

‘NH로보드림’은 비대면 앱 전용 상품으로 올원뱅크와 NH스마트뱅킹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가입이 가능하다.



WM특화점포 활성화 순항 “차별화된 지역기반 자산관리 실시”

NH농협은행 경북분부는 WM특화점포 영주시지부를 대상으로 BI(Brand Identity) ‘NH All100종합자산관리센터’를 도입하고 현판식을 진행 했다고 밝혔다.

NH All100종합자산관리센터는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자산가 고객층을 대상으로 금융·세무·부동산·은퇴설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제공하며 고객의 상황에 맞춘 최적의 자산관리를 선보인다. 또한, 본부 내의 ‘NH All100자문센터’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보다 전문적인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열기가 식은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는 가을, 풍요로운 들판이 미래를 반긴다

유난히 더웠던 여름을 지나 곡식이 익어가며 짙은 향기를 흘리는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 추운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 전략을 세우는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이번 가을호의 풍성한 콘텐츠로 미래 전략을 세워보자.

PROSP



EROUIS

건물주보다 좋은 배당주로 노후자산관리 시작하기



글
김성희 WM전문위원

Am100 저문센터

SUMMARY

▶ 배당주로 노후자산관리 시작하는 방법

1. 안정적 노후자금 현금흐름을 위해서는 배당주 투자가 매력적
2. 국내 배당주보다 배당 성향과 성장률이 높은 미국 배당주가 유망
3. 분배금 지급 원천에 따라 분산 투자로 월배당ETF 포트폴리오 운영

은퇴 후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자본투자를 통한 안정적인 현금흐름이 필수적인 조건이다. 노동을 대신해 돈이 일하게 하여 일정한 수익이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은퇴자는 현금흐름 창출을 위한 재테크 수단으로 수익형 부동산을 통해 월세를 받는 방법을 가장 선호하였다.

하지만,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 등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리 부담과 함께 공실률이 높아져 투자수익률이 현저히 낮아졌다. 그러면서 매월 배당을 통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배당주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기존 배당투자는 4~50대 중장년층의 전유물로 여겨졌으나 최근 2~30대 젊은 층의 관심이 증가하며 매월 일정한 배당금을 받는 월 배당형상장지수(ETF)시장은 2022년 이후 1년 반 사이 10배가량 성장하였다.

배당주와 주가의 관계

배당주는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주식이다.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은 대체로 안정성숙기에 진입하여 재무 상태가 양호하고 안정적인 이익을 창출하며 변동성이 낮은 장점이 있다. 따라서 경기 상승기 유틸리티 기업이나 필수소비재 등으로 대표되는 고배당주는 저성장 기업으로 성장주에 비해 주가 상승에서 지루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경

기 하락기에 대표적인 유틸리티 업종인 전력 회사와 필수소비재인 생필품의 소비는 줄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기업이익이 확보되며 주가 하락을 방어할 수 있다.

그리고 배당주가 되었다고 반드시 성장을 멈추거나 둔화하는 것은 아니다. 2003년 배당을 시작한 마이크로소프트나 2012년 배당을 시작한 애플은 매년 배당금을 인상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 시가총액 1, 2위를 지키며 꾸준한 성장을 하고 있다.



미국 배당주 투자의 장점

배당주 투자는 일반적으로 국내 배당주보다 미국 배당주 투자가 선호된다. 국내 기업의 10년 평균 배당 성향은 26%로 다른 주요국 대비 가장 낮지만, 미국 기업은 42%로 높은 배당 성향을 보인다. 또한 국내 배당주는 대부분 연말에 한 번 지급하는 경우가 많지만, 미국 배당주는 분기 혹은 월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분기나 월 배당은 배당 기준일 이후 주가가 하락하는 배당락이 일어나는 강도도 약하며, 현금 흐름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배당금을 월급처럼 받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하다. 특히 미국 배당주는 '배당킹(50년 이상 연속 배당을 증가해오면서 투자자에게 지급)', '배당귀족(25년 이상 연속 배당을 증가해오면서 투자자에게 지급)'이라는 기업 리스트가 따로 있을 정도로 오랜 기간 배당을 늘려온 기업들이 많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대표적인 배당킹 기업으로는 코카콜라, 쓰리엠 등이 있고, 배당귀족 기업으로는 존슨앤 존슨, 맥도날드 등이 있다.

투자의 기본 원칙

모든 투자의 기본은 분산투자로, 배당주 역시 배당수익률과 배당 성향, 지급시기 등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필수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만약 직접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어렵다면 월 배당ETF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월배당ETF의 투자유형은 크게 '주식형', '채권형', '리츠형', '커버드콜형'으로 분류된다. 시세 차이와 함께 주식의 배당금을 원한다면 주식형, 채권의 이자수익과 향후 금리인하 시 자본 차익을 기대한다면 채권형, 수익형 부동산의 임대료와 수익을 기대한다면 리츠형을 선택하면 된다. 채권형은 주식형에 비해 배당금이 낮을 수 있지만 변동성이 낮은 장점이 있으며 리츠형은 자산의 다각화 면에서 분산 효과가 있다. 커버드콜은 박스권 장에서 콜 옵션 매도를 통해 현재의 확실한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상승장에서 상승이 제한되어 있어 회복 속도가 느릴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임대가 일어날 때마다 발생하는 부수적인 거래와 비용을 생각한다면 부동산보다 관리가 편리하고 언제든지 마음대로 매수와 매도가 가능한 배당주가 더 매력적인 투자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자녀를 위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하는 방법



글
이영빈 세무 전문위원

Air100 저문센터

SUMMARY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에 관한 모든 것

1.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및 자녀 출산·입양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법시행일 (2024.1.1) 이후 증여한 경우 적용 가능
2.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와는 별개로 1억 원을 추가 공제해주기 때문에 총 1.5억 원의 증여재산 공제 가능

작년 7월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고 가장 높은 관심을 받았던 부분은 단연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신설이었다. 언론에서는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도해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번에는 2024년 올해부터 적용되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의 정의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제도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와는 별개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하는 제도로, 혼인 또는 출산·입양 시 증여받는 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2024년에 신설되었다.

하지만, 제도를 적용할 때 기본적으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바

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직계존속에는 조부모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조부모에게 증여를 받을 때도 해당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직계존속이 아닌 기타친족(시부모 혹은 장인·장모, 형제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1억 원의 추가 공제는 불가능하다. 적용받을 수 있는 기간도 유의해야 한다. 혼인의 경우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총 4년)로 제한된다. 결혼 자금을 목적으로 하여 증여를 받았는데 2년이 넘도록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다.

증여받는 재산이 반드시 현금일 필요도 없다. 부동산 혹은 주식을 증여받더라도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단, 일정한 사유에 따라 증여로 간주하는 경우(보험을 이용한 증여 행위, 채무 면제 또는 변

표 증여자에 따른 공제금액

증여자	공제금액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000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 원) +1억 원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직계비속	5,000만 원
기타친족	1,000만 원

제를 받아 얻은 이익 등)에 한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에 대한 Q&A

새로 도입된 제도인 만큼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그중 가장 많이 받은 질문 내용 몇 가지를 소개한다.

Question 1

2023.7.1에 증여하고 혼인신고는 2024.7.1에 했는데 적용 가능한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①혼인 신고일 전후 2년 및 자녀 출산·입양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②법 시행일(2024.1.1) 이후 증여하였을 때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증여일이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라 하더라도 법 시행 이전 증여분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다. 반대로 혼인신고를 2023.7.1.에 하고 증여를 2024.7.1.에 한 경우는 요건에 들어

맞으므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Question 2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여러 번 적용이 가능한가?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는 10년에 한 번씩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평생에 1억 원을 한도로만 적용이 가능하다. 초혼에 1억 원의 공제를 받았다면 재혼 때는 추가적인 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 추가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합쳐서 1억 원만 적용한다. 혼인으로 인해 1억 원의 공제를 받았다면 출산할 때는 추가적인 공제를 마찬가지로 받을 수 없다.

Question 3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받았는데 만약 혼인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받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게 된 경우 증여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혹은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면제된다. 단, 이 경우 이자 상당액(현재 기준 연 8.03%)은 증여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번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자녀 세대가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라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다. 이에 기존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크게 보완하는 만큼 꼼꼼하게 요건을 검토하여 절세효과를 누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 금융시장과 동조화 강해지는 서울 주택가격



글
윤수민 부동산 전문위원

Airto 전문센터

SUMMARY

▶ 미국 금융시장과 동조화 현상 강화되는 서울 주택시장

1. 글로벌화 가속으로 한-미 채권금리 변동성 강화
2. 주택시장에서 금리 영향력이 확대되며 금리-주택가격 동조화 강화
3. 초 동조화 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다양한 지표의 검토 필요



최근 부동산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금리다. 한국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부동산은 가격이 가장 비싼 재화이고, 대출을 활용하지 않고 부동산을 구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금리의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과거 저금리 시대를 지나 중·고금리가 새로운 기준이 된 최근 시장 상황에서 금리와 부동산의 상관관계는 더욱 강화되는 모습이며, 금리의 등락에 따라 가격 변동성도 확대되는 모습이다.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금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

다. 변동금리 대출의 기준인 '코픽스 금리'와 고정(혼합)금리 대출의 기준인 '금융채 5년물'로, 주택 구매자는 이들 금리를 기초로 한 최종 대출 금리에 따라 금융사 및 상품을 선택한다. 다만 코픽스 금리는 은행의 평균 수신상품 금리를 활용하여 매달 공시되는 반면, 금융채 금리는 채권시장에서 실시간으로 그 가격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결과적으로 '채권 금리 등락 →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락 → 주택 가격 상승/하락'의 순서로 금리 변화가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내 채권 금리가 영향을 받는 지표

그렇다면 국내 채권 금리는 어떤 지표의 변동성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까? 한국은행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글로벌 통화 긴축 시기에 미국 국채금리가 국내 국채금리

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미국 채권 금리가 국내 채권 금리에 끼친 영향력의 비중은 58% 수준이며, 그 원인은 국내 채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 규모와 비중이 빠르게 상승한 데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아래의 그래프를 살펴보면 미국 국채 5년물 금리와 한국의 국고채 5년물 금리는 상당히 유사한 변동 패턴을 보이는데 특히 채권 금리가 2.5%를 넘어선 22년 이후 한-미 간 채권 금리는 거의 동일한 변동성을 보인다.

금리와 부동산 가격의 변동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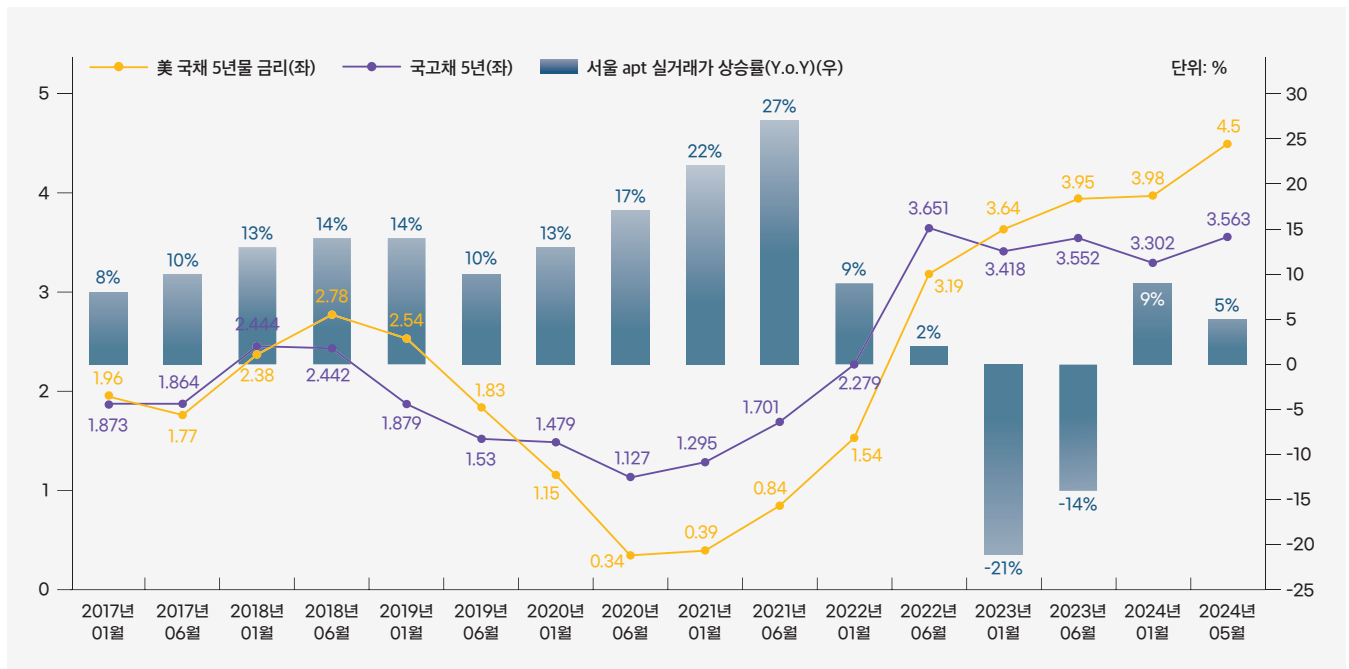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가 지수 상승률을 통해 금리와 부동산 가격 변동성도 확인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채

권 금리와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반비례 관계를 보이는 가운데, 저점과 고점 사이에 약 4~5개월의 시차를 두고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최근 몇 개월간 시장 특성을 살펴보면 금리와 주택 가격 변동성이 더욱 긴밀해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4.1%까지 상승했던 국고채 금리가 올해 1월 3.3% 수준까지 크게 하락하자, 같은 기간 전년 동월 대비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가격 지수 상승률도 10%에 가까운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다만 최근 들어 미국과 함께 우리나라 채권 금리가 다시 상승하는 추세로 돌아서자, 실거래가 가격 지수도 다시 상승에서 보합 추세로 전환되는 양상이다.

글로벌 동조화로 인한 영향

통상적으로 다양한 국가들의 다양한 자산이 유사한 변동성을 보이는 현상을 '글로벌 동조화'라고 말한다. 이런 글로벌 동조화는 2000년대 들어 급격히 강화되기 시작했고, 앞으로는 전 세계 자산이 다 같이 움직이는 '초 동조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만큼 글로벌 금융 변동성이 우리나라 주택 가격 변화에 미치는 영향도 점점 강해질 것으로 보이며, 물가·국제 정치 등 부동산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다양한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이다.📌

표 한-미 채권금리와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 비교



출처: 한국은행, 한국부동산원

심과 여행이 공존하는 부다페스트 한 달 살기



글 김훈식 은퇴설계전문위원

Amitoo 저문센터

SUMMARY

▶ 해외에서 한 달 살기 핵심 정리

1. 목적과 목표 설정 : 힐링, 느낌의 미학 기억하기
2. 여행 계획 수립 : 많은 장소보다 한 장소를 임팩트 있게 둘러보기
3. 사전답사 시행 : 정확한 현지정보 습득하기

사람이 행복할 때가 언제인가? 라는 물음에 나는 이렇게 답할 것이다. 첫째,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둘째,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경치나 사물을 볼 때라고 말이다. 한 가지만 해도 행복한데, 3가지를 동시에 하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이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것이 “여행”이라고 생각하며 내 버킷리스트 중 하나인 ‘해외에서 한 달 살기’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여행지 선정하기

여행을 가기 전에 우선 본인이 희망하는 나라와 도시를 선정해야 한다. 필자의 경우 아래 표와 같이 치안이 잘 되어있고 대중교통이 편

리하며 관광지과 먹거리가 풍부한 10개 도시를 비교하였는데 그 결과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동유럽 최고의 야경을 자랑하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한 달 살기를 시작하려고 한다.

여행지 기초 정보 파악하기

여행을 가려면 여행지의 기초 정보를 충분하게 파악하는 것이 기본 중의

표1 해외에서 한 달 살기 : 필자가 추천하는 여행지

단위: 만 원

국가	도시	비행 시간	왕복 항공권	숙소 위치	숙소 금액	교통비	한 달 생활비	치안	여행 적기	날씨
헝가리	부다페스트	편도 12시간30분	130~200	데악역, 어부의요새	150~200	10	150~200	상	5월~9월	11도~27도
인도네시아	발리	편도 7시간	130	짱구, 우붓	150~200	10	200~250	상	5월~9월	23도~33도
말레이시아	페낭	편도 10시간	40~180	조지타운, 바투페링기	100~200	10	150~200	상	11월~1월, 6월	23도~30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편도 7시간	60~80	몬키아라	100~150	10	200~240	중	1월~8월	22도~33도
태국	치앙마이	편도 5시간30분	120	님만해민, 창푸악	100~150	15	150~200	상	11월~2월	20도~25도
베트남	호치민	편도 5시간30분	60~100	1군, 7군	150~200	10	150~200	상	11월~1월	21도~31도
베트남	다낭	편도 4시간35분	60~100	미케비치, 안트엉	100~150	10	150~200	상	12월~3월	20도~28도
체코	프라하	편도 13시간	180~200	1구, 6구	120~150	10	200~300	중	6월~8월	11도~23도
일본	삿포로	편도 2시간40분	60~80	jr삿포로역, 스키노역	150~200	15	200~300	상	6월~9월	12도~26도
대만	가오슝	편도 3시간	30~50	메이리다오역, 신쥘잉역	100~150	10	200~250	상	11월~2월	17도~28도

기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기초 정보를 소개한다.

여행 계획 세우기

숙소는 호텔이나 에어비앤비를 통해 교통이 편리하며 별점이 높은 곳을 선택하고 반드시 후기를 확인해야 한다. 제일 유명한 관광지 리스트를 순차적으로 정리했는데, 참고로 '네이버 여행 정보'를 이용하면 부다페스트 관광지 1위~137위까지를 한 번에 볼 수 있다. 또한, '구글 지도'를 통해 가고자 하는 관광지를 별표로 표시해 동선을 미리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부다페스트 인근 도시 여행하기

부다페스트를 여행하며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면 차로 2시간 30분 거리에 위치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연온천 '헤비츠호수' 온천에서 지친 심신과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도 좋다. 부다페스트 근교의 대표 휴양도시 '케스트헤이'에서 헝가리의 바다라 불리는 '발라톤' 호숫가를 산책하고, 헝가리 역사를 품에 안고 멋진 야외정원으로 유명한 '페슈테티치궁전'을 방문해 좀 더 다양한 문화를 접하는 것도 좋다. 활동적인 경험을 원한다면 동부 테브레첸에 있는 '호르토바지' 국립공원을 방문하여 다양한 액티비티와 사파리 투어로 야생 동물을 생생하게 만나 볼 수 있다. 그래도 시간이 남는다면 근처에 접해 있는 나라들인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그리고 크로아티아 여행을

표2 헝가리 부다페스트 기초정보

구분	내용	구분	내용
비자	90일 무비자 가능	시차	8시간 느림
화폐	1포린트(HUF) : 3.87원 유로사용 가능	팁	대략 10%
표준전압	230V	물가	한국보다 약간 저렴
날씨	7월 기준 16도~28.4도	관광지 및 상점 영업 시간	관광지 오후 4~6시, 상점 오후 10~11시까지 영업
사용 언어	헝가리어와 영어	교통	한 달권이나 그룹티켓
카드사용 가능 유무	대부분의 상점에서 카드사용 가능	※ 헝가리 영수증에는 아래에 화장실 비밀번호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 버리면 안 된다.	

추천한다. '아바타'의 모티브가 된 크로아티아 '플리트비체' 국립공원을 1박 2일 코스로 시작해 황제의 도시 '스플리트'에서 1박2일을 보낸 뒤 가장 유명한 아드리아해의 진주 두브로브니크의 성벽투어, 부자카페, 케이블카 탑승과 성벽 사이 골목골목 걸어 다닌 것만으로 시간이 훌쩍 지난다고 하니 체력 관리는 필수다. 이렇게 크로아티아 일정을 포함해 이번 여행을 마무리하려 한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플릭스 버스를 이용하면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도착} 만약 여행하면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헝가리대한민국대사관을 찾아가자. 주소는 1062 Budapest, Andrassy út 109, Hungary 이며 +36-1-462-3080로 전화하면 된다.📞

부다페스트 여행 코스

지도 출처 : 구글맵



- 1코스 세체니온천▶부다페스트미술관▶회식크광장▶버이더후녀드성
- 2코스 성이슈트반 대성당▶국회의사당▶세체니다리▶부다성▶어부의요새
- 3코스 머르기트섬 투어▶워터타워▶도미니칸 수녀원▶장미정원▶플라타너스 스트랜 드 수영장▶하르머시 뷔페)
- 4코스 박물관 투어▶헝가리 국립박물관▶공포의 관▶핀볼 박물관▶국립미술관▶역사박물관



중장년 취업트렌드 2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하 노인일자리사업)은 노년층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활기찬 노년을 위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노인복지 정책이다. 노인일자리사업의 정책 효과에는 소득 보충으로 인한 빈곤 완화의 '경제적 효과', '의료비 절감 효과' 그리고 사회활동을 통한 '사회 관계적 효과'가 있는데, 수많은 노인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했으며 앞으로도 그 수요는 이어질 것으로 본다.

글 송창호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 과장



노인일자리사업은 2004년 공익활동과 시장형, 인력과건형으로 시작되어 2024년에는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럼, 노인일자리사업과 참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먼저 각 유형의 대표적인 사업을 소개한다.

공익활동

첫 번째로, 공공형의 '공익활동'은 노인이 자기만족, 성취감 향상 그리고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봉사활동으로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그 대상이다. 경로당 급식 지원에 한해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및 60~64세 차상위 계층 대기자가 없으면 60세 이상 적합자를 선발할 수 있으며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

공시설 봉사, 경륜 전수 활동 등을 하게 된다.

사회서비스형

두 번째로, '사회서비스형'은 노인의 경력과 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지역사회돌봄, 안전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다. 65세 이상이 참여할 수 있지만, 일부 유형만 60세 이상도 참여 가능하다. 가정 및 세대 간 서비스, 취약계층 전문 서비스, 공공 전문 서비스, 노인일자리 및 노인 사회활동 지원 등을 수행한다.

시장형사업단

마지막으로 민간형의 '시장형사업단'은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일정 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 일부를 보충 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한다. 60세 이상 사업 특성 적합자를 대상으로 하며 식품 제조·판매, 공산품 제작·판매, 매장 운영, 운송 등을 담당한다.

이외에도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시니어인턴십', '취업알선형', '고령자 친화기업'과 같은 다양한 사업이 있으며, 이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업에 참여할 대상자 모집이 매년 연말 혹은 연초에 진행되는 만큼 해당 기관을 통해 세부 일정을 확인해 신청하는 게 좋다.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방법 및 문의처

참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수행기관(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에서 지역신문, 게시판, 기관 사이트 등을 통해 사업 내용과 참여 가능 인원 등을 공고하면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가까운 수행기관 또는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서 '참여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통합신청을 할 수 있다. 최종 참여자는 신청자에 대한 수행기관에서 개별상담을 진행하고 참여자 선발 기준표를 작성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선정한다.

만약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한 문의가 있다면

1. 한국노인인력개발원(www.kordi.or.kr),
2.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https://saswc.or.kr>) 또는
3. 서울시니어클럽협회(<http://seoulsc.or.kr>)로 하면 된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1. 공공형

유형	내용	지원	대상
공익활동	노노케어,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봉사, 경륜 전수 활동 등	월 29만 원 / 평균 11개월	기초연금수급자

2. 사회서비스형

유형	내용	지원	대상
사회서비스형	노년층의 경력과 활동 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지역사회 돌봄, 안전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월 71만2천 원 / 10개월	만 65세 이상 (일부 만 60세 이상)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외부 자원(인적·물적)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분야 맞춤형 일자리	월 32만 원 / 5개월	만 60세 이상

3. 민간형

유형	내용	지원	대상
시장형사업단	노년층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일자리	연 267만 원 사업비	만 60세 이상
취업알선형	관련 직종 업무 능력 보유자를 수요처로 연계	지자체 연 15만 원 / 민간 연 10만 원	
시니어인턴십	기업에 인턴 기회(3개월) 제공 후 계속 고용 유도	연 최대 240만 원 / 6개월(3+3개월)	
고령자친화기업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 지원	최대 3억 원 사업비	

몸통 스윙과 척추 각 유지가 장타의 비결

저번 호에서는 골프의 장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 가을호에서는 2023 시즌 대회 평균 3.63개, 총 283개에 달하는 버디를 낚아 '버디 사냥꾼'으로 통하는 황유민 선수와 함께 스윙을 분석해 본다.

작성 김지수 자문 권순우(트리니티 골프 레인지) 사진 하나금융그룹 출처 매경골프



SET UP

1 어드레스 동작에서 무릎은 유연한 상체의 회전과 넓은 아크를 만들 수 있도록 약간 굽혀져 있다. 거의 서 있는 듯한 느낌으로 현대 스윙이 추구하는 방향성과 동일하다. 상체는 60도 정도로 숙여 몸의 충분한 꼬임을 만들도록 했다. 그림은 뉴트럴에 가까운 스트롱 그립으로 클럽에 강한 힘을 전달한다.

TAKE BACK

2 테이크백 동작에서는 하체의 체중 이동이 먼저 이루어진다. 그 후 팔과 몸의 간격을 그대로 유지한 채 클럽을 들어 올리는데 오른쪽 팔꿈치가 퍼져 있는 상태가 특징이다. 이렇게 되면 스윙아크(클럽헤드가 그리는 원)가 커져 장타에도 도움이 된다. 충분한 몸통 회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손목의 움직임은 최대한 고정했다.

THREE-QUARTERS -POSITION

3 황유민은 스윙의 4분의 3지점까지 팔과 몸의 간격을 최대한 유지한다. 어드레스 때와 같이 척추와 골반 각도를 유지하며 점차 체중을 오른발 뒤꿈치 안쪽으로 옮긴다. 장타를 견인할 힘을 장전하는 모습이다.



TOP OF SWING

4

황유민의 장점은 코어가 굉장히 강하고 유연하다는 것인데, 백스윙 톱에서 하체는 45도 정도 회전 후 최대한 고정해 주고 체중은 70% 정도 오른발로 이동시킨다. 또한, 상체를 110도 이상 회전시켜 강한 고임을 만들어 냈다. 왼쪽 손등과 헤드 페이스가 대각선으로 누워 하늘을 바라보는 각도로 완벽한 스퀘어를 만들었다.



DOWN SWING

5

다운스윙 동작은 70% 정도의 체중을 왼발에 실으며 하체와 몸통의 회전을 시작한다. 하체를 타깃 방향으로 약간 밀며 주저앉는데, 체중 이동과 지면 반력으로 헤드 스피드(골프채 헤드와 공을 칠 때의 속도)를 최대로 끌어내기 위해서다. 손목의 로테이션은 최소화하고 몸의 축을 중심으로 몸 전체가 강한 회전력을 만든다.



IMPACT

6

임팩트 구간에서 머리를 중앙에 고정해 축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다운스윙 때부터 임팩트까지 오른쪽 팔 상부와 겨드랑이가 몸통에 붙어 있는 형태로 함께 움직인다. 손목의 움직임을 최소화해 일정한 임팩트를 만들어 낸다.



FOLLOW THROUGH

7

폴로스루에서도 척추 각의 중심을 잡아줘 큰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최대한 넓게 손과 몸의 간격을 유지함으로써 정확하고 일정한 샷을 보여준다. 체중이 90% 이상 왼발 쪽으로 넘어가 있는 체중 이동의 잘된 예시다.

FINISH

8

마지막으로, 체중을 100% 왼발로 옮겨 견고한 피니시 동작을 완성했다. 큰 근육의 회전을 이용한 보디 스윙으로 밸런스가 흔들리지 않고 체중을 볼에 온전히 실은 깔끔한 마무리다. 몸통의 회전을 이용한 스윙은 피니시 자세가 일정하다는 장점이 있다.

기미 관리법

치료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다



기미는 무엇이며 왜 생기나요?

피부가 자외선에 노출되면 표피에 있는 각질 형성 세포인 케라티노사이트가 멜라노사이트 세포에 신호를 보내 멜라닌이 만들어집니다. 생성된 멜라닌은 표피로 이동하여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멜라닌은 색소이기 때문에 검게 표출됩니다. 이때 멜라닌이 과다하게 생성되면 기미가 됩니다.

거뭇한 기미가 외관상 지저분해 보인다는 이유로 제거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미 없는 깨끗한 피부를 만들고 싶다면 기미를 무조건 없애기 전에, 왜 생기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피부가 잘 보호되면 기미는 거의 올라오지 않습니다.

피부가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기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피부의 상태를 보며 기미를 적절하게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미의 악화 인자에는 무엇이 있나요?

기미가 생기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단순히 햇빛에 노출돼서 기미가 생긴다는 것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기미의 악화 인자는 내적 악화 인자, 외적 악화 인자가 있습니다. 내적 악화 인자는 임신, 출산, 피임약 복용 등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나 프로게스테론의 수치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나타납니다. 스트레스나 위장·간장·신장 등의 질병도 내적 악화 인자에 속합니다.

외적 악화 인자는 피부를 자극하는 향수나 화장품, 사우나의 뜨거운 수증기 등이 있습니다. 기미 치료 성분인 하이드로퀴논의 부작용, 잘못된 레이저 시술로 인해 악화 인자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기미는 한 가지 원인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2~3가지 악화 인자가

기미는 많은 사람이 고민하는 피부 문제 중 하나다. 한 번 생기면 없애기 쉽지 않아, 제거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치료 과정에서 예민한 피부가 될 수도 있다. 이번에는 기미 관리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글 강선자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뷰티학과 특임교수, 피부관리실 애띠에 원장



복합적으로 발생하면서 몸의 항상성을 깬 때 나타납니다.

기미를 예방하기 위해서 기미 악화 인자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부는 스스로 힘들다고 판단하면 본능적으로 과한 반응을 일으킵니다. 반복적으로 피부에 자극을 받으면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극이 있을 때는 빠르게 진정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에 자극이 가면 열이 나고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충분한 보습을 주고 얼굴의 열을 내려야 합니다. 빠른 진정을 위해 수딩 에센스를 듬뿍 바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떻게 기미를 예방할 수 있나요?

기미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외선 차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외선차단제는 멜라닌과 같이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멜라닌은 24시간 피부를 보호하지만, 자외선차단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땀이나 유분으로 지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외선차단제를 2~3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합니다. 또, 자외선차단제가 자외선을 완벽히 차단하지는 않기 때문에 선글라스, 긴소매 옷, 양산 등으로 한 번 더 피부를 보호해 줄 것을 추천합니다. 시스테인, 글루타티온 등의 항산화제를 섭취하는 것도 기미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미 치료법을 소개해주세요.

기미를 치료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백 크림, 레이저 치료, 화학적 필링, 미세박피술 등이 있습니다. 미백 크림에는 히드로퀴논, 코직산, 알부틴, 비타민 C 등이 포함되어 있어 멜라닌 생성을 억제해줍니다. 레이저 치료는 멜라닌만 공격하여 색소를 파괴하거나 줄입니다. 화학적 필링은 피부의 각질층을 제거하여 멜라닌을 줄이고 피부 재생을 촉진합니다. 미세박피술은 피부의 표면을 부드럽게 깎아내는 방법으로, 색소 침착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기미를 치료하고 몇몇 실수를 하곤 합니다. 피부가 깨끗해지면 맑은 피부를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화장을 열게 하고 자외선차단제도 잘 바르지 않는 것이 그중 하나입니다. '기미'라는 피부의 보호막이 사라진 상태이므로 더 꼼꼼하게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야 합니다.

기미 치료의 효과를 보고 나서, 새로운 각질이 재생되는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고 기미를 계속 제거하는 실수도 종종 합니다. 그러면 피부는 더 예민해지고, 예민해진 피부에 기미가 나타나게 되는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만들어집니다. 기미를 치료하고 효과가 있으면 치료를 중단해야 합니다. 이때는 피부의 각질층이 제거돼 피부가 예민해진 상태입니다. 피부 보호막인 각질이 생성되면 일정 기간을 두고 다시 기미 치료를 진행해야 합니다.

기미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기미 악화 인자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항산화제가 풍부한 식단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도 기미 예방 및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

동해석유 연말 본격탐사... 대왕고래 사냥 나선다

정부가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우리 국민이 최대 29년간 사용할 수 있는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해 연일 화제입니다. 대중들의 관심이 쏟아지며 증시가 들쭉이는가 하면, 정치권에서는 국면전환 정치쇼란 주장과 정부 노력을 폄훼하기만 한다는 반박이 오가는 등 여야 간 논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시총 5배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포항 앞바다에 막대한 원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라고 밝힌 후 심해 유전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작년 2월 그간 축적해 온 동해 심해 탐사자료에 대한 심층 분석을 미국 자문업체 ‘액트지오’에 의뢰했는데요. 액트지오는 물리탐사 결과 영일만 38~100km 해역에 35~140억 배럴의 원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작년 연말에 내놨습니다. 이는 세계 최대 석유 개발 프로젝트로 불리는 남미가 이어나 광구(110억 배럴)를 뛰어넘는 수준이며 ‘비트로 아브레우’ 액트지오 고문은 6월 5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의 경제성이 높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영일만에 원유·가스가 1대3 비율로 매장됐을 것으로 추정하며 이는 원유보다 가스 매장량이 훨씬 많은 가스전 형태라고 합니다. 원유·가스 매장량이 140억 배럴로 확인될 경우 한국에서 원유는 4년, 가스는 29년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경제적 가치를 단순히 추산하면 2,000조 원에 달하며 이는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규모인데요. 1990년대 후반 발견된 동해 가스전의 300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석유·가스 존재 암시 4대 근거 발견

아브레우 고문은 브리핑에서 한국석유공사로부터 데이터를 넘겨받아 분석한 과정을 설명한 뒤 “이 프로젝트의 유망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했는데요. 정부 발표대로 석유·가스 개발 성공률을 20%로 제시하며 “굉장히 양호하고 높은 수준의 가능성을 의미하는 수치”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는 이 같은 결론을 낸 이유가 석유·가스의

존재를 암시하는 필수 4대 조건인 ‘저류층(모래)’, ‘덮개암(진흙)’, ‘기반암’, ‘트랩’ 등 구조가 분석 대상인 모든 광구에서 확인됐기 때문이라 밝혔습니다. 해저에 있는 석유·가스는 지형을 따라 이동하는데 모래로 이뤄진 저류층을 만나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진흙·암염 등이 덮개암 역할을 하면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석유·가스를 가두는 구조(트랩)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 같은 구조를 확인했다는 겁니다.

또한, 그는 액트지오 내 2개 팀을 꾸려 석유·가스가 묻혀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되는 ‘유망구조’의 도출을 시도하고 기존에 시추가 이뤄졌으나 석유·가스 발견에 실패한 3개 유정의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규모의 저류층을 찾아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7개 유망구조를 도출했고, 리스크·매장량 분석 등을 거쳐 매장량을 35~140억 배럴로 추정했다는 설명입니다.

동시에 “20%의 성공 가능성이 있다”는 말은 ‘80%의 실패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라며 “실제 입증할 방법은 시추밖에 없다”고 말하며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는 탐사 성공률 20%에 대해 “지질학적인 의미에서의 성공 가능성이 20%라는 것이며, 상업적 성공 가능성은 별개”라고 밝혔습니다. 7개 유망광구에서 석유·가스가 발견될 가능성이 20%고 채산성이 있는지는 석유공사가 따로 따져봐야 할 문제라는 것이죠.

동해, 과거부터 자원 부존 가능성 제기

이번 후보지 발견이 갑작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국내외 업계와 학계에서는 동해에서 석유와 가스가 부존할 가능성이 있는 곳을 지난 30

*** 시추**

긴 탐사공을 바닷속 해저 깊숙이 뚫어 실제 석유·가스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

*** 구조도**

구조의 유해로 만들어진 연질의 암석과 토양

년간 계속 찾아왔고, 실제 성과도 있었습니다. 앞서 한국석유공사는 1998년 울산 남동쪽 58km 해상에서 가스전을 발견했으며 2004년부터는 동해 1, 2 가스전을 개발해 석유와 가스를 생산했습니다. 이에 한국은 세계 95번째 산유국으로 이름을 올렸죠.

포항 앞바다에서 석유와 가스전이 발견된 것은 이 지역의 지질학적 형성 시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지질자원의 보고’로 불리는 신생대 3기 층으로 분류됩니다. 신생대 3기 층은 비교적 최근에 형성된 젊은 지질층으로 유기물과 바다 생물이 널리 분포해 과학계에서는 천연가스나 석유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제기돼왔는데요. 포항은 국내에서 신생대 3기 층이 가장 넓고 두껍게 분포하는 지역이고 영일만 구조도 광산 지역 일대에는 국내 타지역에서 볼 수 없는 벤토나이트나 불석을 비롯한 비금속광 매장량도 풍부합니다.

별개로, 호주 탐사 개발 업체인 우드사이드가 동해 8광구와 6-1광구 북부 지역을 15년간 탐사하고도 유망구조를 발견하지 못한 채 철수해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아브레우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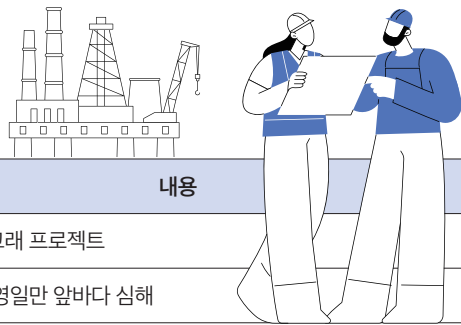
문은 “우드사이드가 급하게 철수하면서 조사해 놓고도 분석하지 못한 데이터가 많았고, 여기에 더해 석유공사가 별도로 확보한 자료를 종합해 ‘순차 층서 해석’ 기법을 적용, 7개 유망구조를 도출해 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연말 시추 시작

산업부는 동해 심해 유전 탐사 개발 프로젝트를 ‘대왕고래’로 이름 붙였습니다. 석유 탐사 및 개발은 일반적으로 ‘물리탐사’, ‘탐사 시추’, ‘경제성 평가’, ‘원유 생산’ 등 4단계를 거쳐 진행되며 현재 정부 당국은 물리탐사를 마쳐 첫 단추를 끼운 상태입니다. 정부는 연말부터 시추탐사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올해 연말부터 2026년까지 최소 5회 지속적으로 시추공을 뚫게 되는데요. 첫 시추 결과는 내년 3~4월에 나올 전망입니다. 석유공사는 연말 시추 작업을 위해 노르웨이 유전 개발업체인 시드릴사와 계약을 한 데 이어 탐사 잠수정, 헬기 등을 선정한 상태이며 헬기는 김해공항에서 대왕고래 시추선까지 시추 인력과 긴급 기자재를 나르거나, 응급환자 발생 시 수송 역할을 맡게 됩니다.

정부는 유전이 발견되고 개발계획도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2035년부터 원유·가스를 생산할 수 있으리라 전망하고 있는데요. 경제성 여부가 최대 변수입니다. 원유·가스가 발견되더라도 매장량이 충분하지 않으면 채산성이 낮아 상업화로 이어지지 못할 수도 있으며 수면에서 1km 이상 들어간 심해에서 시추 작업이 이뤄지는 탓에 탐사 시추공을 쫓을 때마다 1,000억 원 비용이 소요됩니다. 원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영일만 일대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탐사가 신중히 이뤄질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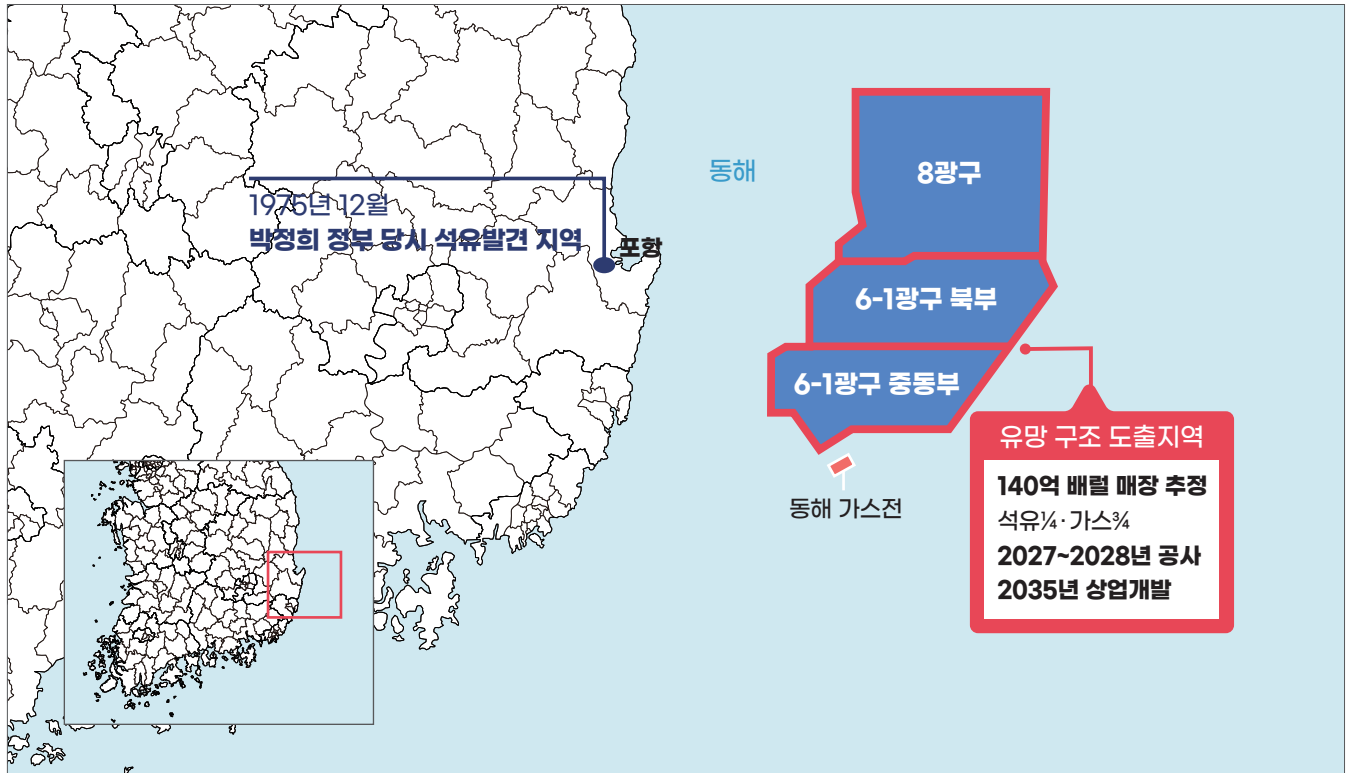
표 동해 석유·가스 탐사 개발 개요



구분	내용
사업명	대왕고래 프로젝트
지역	포항 영일만 앞바다 심해
추정매장량	35억~140억 배럴(가스 3/4, 원유 1/4)
탐사 계획	연말 첫 공 시추, 내년 상반기 탐사 결과 도출
탐사 성공 시	2035년 상업개발

자료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그림 동해 심해 석유·가스 매장 예상 지역



자료 출처: 대통령실,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공사

정이며 산업부와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시추는 5~9회 시도할 계획입니다.

시추 자금, 석유공사 용자와 해외 투자금으로 조달

정부는 탐사 성공률 추정치가 20%인 점을 감안해 최소 5개공을 시추할 계획으로 시추에는 최소 5,000억 원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이에 정부는 석유·가스 시추를 맡을 한국석유공사에 용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산업부는 자본 잠식 상태인 석유공사의 재무 상황을 고려해 자원 공기업 용자 지원을 재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석유공사가 올해 확보한 예산은 출자금 480억 원, 용자금 400억 원 등 총 880억 원에 불과해 올해 말 이뤄질 1차공 시추부터 자

- * **조광료**
광물이나 자원을 캐내는 대가로 지급하는 돈
- * **순차 층서 해석 기법**
심해 퇴적물에 쓴 탄성파를 분석해 지질구조를 분석하는 기법

금 부족이라는 난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산업부는 개발비에 대해 “매장량이 확인되지 않은 현시점에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과거 4,500만 배럴을 생산한 동해 가스전의 경우 총 1조 2,000억 원의 투자비가 소요됐다는 점을 참고 사례로 내놨습니다.

정부는 글로벌 석유업체들의 투자도 끌어올 방침입니다. 산업부는 “시추 재원은 정부 재정과 석유공사 자체 자금, 국내·외 유치 투자금으로 조달할 계획”이라며 “비용 절감과 위험요인 완화 차원에서 기술력과 자본을 보유한 민간 투자금을 유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추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국내법에 따라 한국 정부에 조광료와 법인세 등을 납부하고 남은 금액을 수익으로 취하게 됩니다. ㉠

부동산 시장을 좌우하는 ‘부동산 PF’ 년 누구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PF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부동산 PF란 'Project Financing'의 약자로 지금의 신용이나 담보가 아닌, 미래에 생길 수익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아파트, 오피스텔과 같은 부동산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지난 2022년 9월, 우리나라 경제 최대 뇌관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PF 리스크가 부상했습니다.

최근 부동산 PF 시장 현황

이는 2천50억 원 규모의 '레고랜드 채권 연장'이 불발된 데 따른 건데요. 이를 시작으로 지난 2023년 7월에는 부동산 PF 대출 부실 우려로 인한 새마을금고 대규모 예금 인출이 발생했고,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PF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부동산 PF 부실 위험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도 부동산 PF 시장 위기에 한몫을 더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태영건설은 자금조달 우려가 커졌고, 12월 21일 신용등급 전망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후 12월 28일 태영건설은 결국 워크아웃을 신청하기에 이릅니다. 시공 능력 순위 16위의 중견 시공사인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에 들어가자, 건설업 전반에는 자금경색이 발생했습니다. 부동산 PF 시장의 건전성이 악화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커졌습니다. 우리나라의 PF는 시공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건설사에 자금경색이 발생하면 개발 중단 위험이 커지며, 상대적으로 양호한 사업장이나 기업까지 위험이 전이되는 등 리스크가 증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22년 9월 레고랜드 사태 이후 대규모 유동성 공급정책과 함께 시장 안정 대책을 본격 추진했습니다.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사업장별 실태에 따라 '정상 사업장'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으로 차환해 리스크를 해소하려 했고 '우려사업장'은 PF

대주단 협약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의 매입 등을 통해 사업재구조화를 했습니다. 또 '부실 사업장'은 매각·청산을 각각 추진했는데요. 지난해 말부터 진행한 태영건설 워크아웃 과정을 통해 지난 4월 30일, 채권단협의회에서 기업 구조개선계획이 가결되기도 했습니다.

이에다 불구하고 고금리와 고물가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사업성이 극히 낮은 사업장 재구조화와 정리가 지연되고, 2금융권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한 데 따라 금융 당국은 지난 5월 13일, 부동산 PF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 등급을 세분화, 구체화하며 사후관리 기준도 마련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 대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며 정부의 대규모 자금 수혈이 오히려 부실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PF 시장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파악해야 할, 근본적인 PF 시장의 위축 원인은 무엇일까요?

부동산 PF 시장이 위축된 이유

우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본 대출 'PF'에 넘어가기 전 '연결 다리 자금'이란 게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바로 '브릿지론'입니다. 신용도가 낮은 시행사 등이 특정 부동산개발사업장의 개발 자금을 제2금융권에서 높은 이자를 내고 빌려 쓰다가 사업이 진행되면서 자산

클 박연신 SBS Biz 기자
SBS Biz 금융부에서 금융위, 금융지주, 시중은행 등을 취재하고 있음.
금융 소비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사를 쓰는 것을 목표로
현장을 열심히 뛰고 있음





가치가 높아지고 사업성이 좋아져 리스크가 줄어들면 제1금융권의 낮은 이자의 자금을 차입하게 되는데, 이때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차입금을 브릿지론이라고 부릅니다. 브릿지론은 본PF 조건(토지 확보, 인허가 완료, 시공사 선정)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진행되기에 향후 사업 진행 단계에서 큰 불확실성을 갖게 되는데, 이에 부동산 시장이 악화할 경우 자산건전성 악화를 불러일으킵니다.

브릿지론을 일반 토지담보대출과 동일시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브릿지론 같은 경우, 본PF 전환을 통해 상환되기 때문에 본건 개발사업의 사업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 관련 내용(사업 종류, 사업 규모, 사업비, 금융 구조, 시공사, 인허가 등)이 확정된 본 PF와 달리, 브릿지론은 모든 것이 미확정된 상태라 사업성 판단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브릿지론을 토지담보대출로 심사하는 실수가 생기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사업주, 시장참여자의 소극적인 사업장 매각 태도를 들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그간의 부동산 PF 대책을 통해 금융위

*** PF 대주단협약**
공사에 필요한 자금(PF 대출)을 조달해 주는 복수의 금융회사들이 결성한 단체(대주단)가 맺은 협약

*** 워크아웃**
기업을 회생하기 위한 재무구조 개선 작업

기로 번지는 것을 막았지만, 다수의 시장참여자가 이를 '시간 벌기'로 인식하고 구조조정과 매각·청산에는 소극적이어서 부동산 PF 부실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캠코'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저축은행으로부터 총 7조 4천억 원의 부동산 PF 부실채권을 사후정산부조건으로 장부가액(액면가-충당금적립액)에 매입한 바 있습니다. 다만 사업 재구조화를 통한 정상화 실적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이에 채권 금융기관들은 과거 사례를 보고 당장의 손실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PF 채권 매각을 기대하며 'PF 대주단 협약'을 구조조정보다는 부도를 유예하고 손실 인식을 미루기 위한 방안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문제로 꼽힙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 경기가 나빠짐에 따라 부동산 PF 시장이 위축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무렵부터 금리가 상승하고 유동성이 감소해 부동산시장 소비심리 지수가 하락하면서 부동산 거래량이 대폭 감소했는데,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지난 2022년부터 하락하다 기준선인 100을 웃돌았습니다. 이어 전국 토지거래량도 지난 2022년부터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고, 올해 초 최저점을 찍은 상태입니다.

부동산 PF 시장 부실을 줄이는 방법

우선, 부동산 PF 부실로 인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가와 시장원리에 기반한 지원이 이뤄져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PF 시장 참여자들의 인센티브를 이해하고 시장구조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PF 부실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특정 사업장의 부실이 건설사

*** 자금경색**

자금이 원활하게 유통되지 않아 기업이 자금난을 겪는 현상

*** 장부가액**

자산·부채·자본 등 항목별 기준에 따라 회계장부에 기록된 금액

나 금융회사의 자금경색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사업장이나 기업까지 위험이 전이되지 않도록 적시에, 유동성 등을 공급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러한 지원이 부동산 활황기에 무리한 확장을 하지 않고 위험관리에 애쓴 기업에 상대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평가와 시장원리에 기반한 지원도 이뤄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 토지 담보 가치가 아니라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사업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인허가와 시공사 선정

과 관련해 현재 진행 상황과 가능성에 대한 파악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PF가 사업성 평가에 근거해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행사와 금융기관, 보증제공 시공사가 공평하게 손실을 분담하는 구조조정을 통해 정상화와 정리를 추진하도록 절차와 유인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급격한 부동산 PF 부실이 실현될 경우, 우리가 앞서 봤던 사례와 같이 취약한 금융회사와 건설사를 중심으로 금융 불안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가계부채를 늘리지 않는 건설 수요 진작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부실화와 합의 단계별 구조조정 절차를 확립해 일정 기한 내 대주단이 합의하지 못할 경우 법적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금융회사의 구조조정 추진에 대한 확실한 유인이 주어져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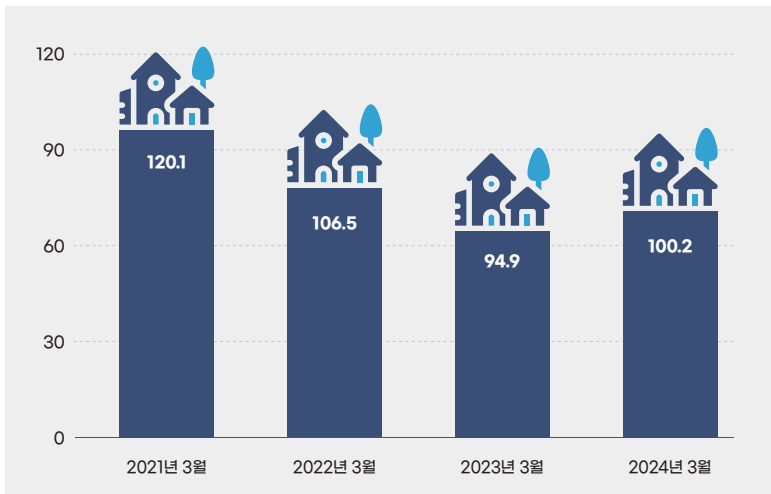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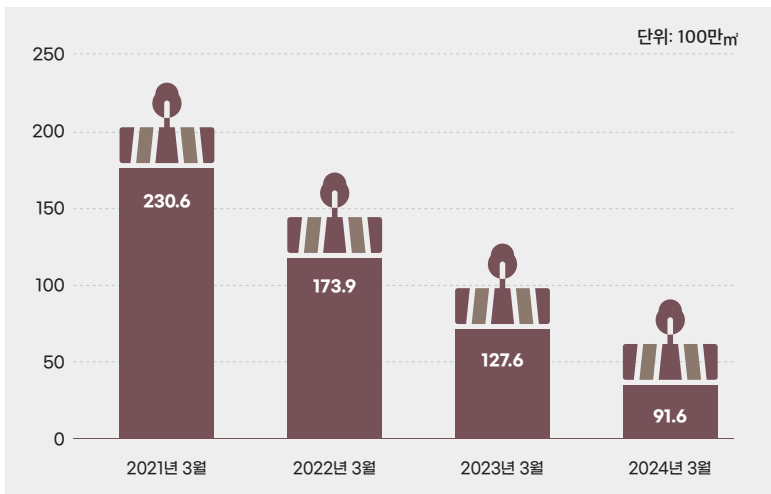
미국의 사례도 참고해볼만 합니다. 부동산 PF 대출의 상환 및 연체 유예 등 대출 조정 단계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구조조정 및 정리 단계 또한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미국 감독 당국의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해 'PF 대주단협약'을 보완하는 겁니다. 앞서 미국 금융당국은 지난해 6월 '건전한 상업용부동산 대출의 조정 및 구조조정에 대한 정책 방안'을 개정해 발표했습니다. 해당 개정에서 상환 유예 등 '대출 조정'과 추가 신용공여 및 차주 동의·부동의 구조조정 등 '워크아웃'을 구분하고 대출 조정 및 구조조정이 차주 및 대주 모두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미 감독 당국의 방침을 참고해 우리나라도 충당금 적립과 건전성 분류에서 구조조정에 대한 유인을 확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표1 부동산 시장 소비심리지수



출처: 한국부동산원

표2 전국 토지거래량



출처: 한국부동산원

LEGAL INFORMATION

법률 정보

저작권 침해에 대한 기초적 이해

저작권은 지식재산권의 일종으로 지식재산권에는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등이 있다. 그중 저작권은 표현을 보호하는 것으로 이번 호에서는 저작권 침해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다뤄본다.

친고죄에 해당하는 저작권 침해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성립될 수 있으나, 특허권과 상표권은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저작권 침해 범주는 특허권이나 상표권 침해의 경우와는 달리 ‘친고죄’에 해당한다. 즉, 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이며 동시에 합의 등으로 고소를 취하하면 수사나 처벌을 할 수 없다. 이에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고소를 한 경우에는 ‘합의’ 내지 ‘고소취소’가 중요한 사안이 된다.

저작권 침해를 악용하는 사례

이를 악용해 무작위적으로 고소한 후 합의금 지급을 조건으로 합의를 요구할 때도 있는데, ‘인터넷상에서 떠돌아다니는 이미지 등을 사용한 경우’,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등이 그것이다.

이 경우 고소인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음을 알면서도 곧바로 고소하지 않다가 일정한 기간이 흐른 후 고소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한다. 또한, 외부 업체에 홈페이지 제작을 맡겼는데, 사용된 이미지나 문구가 저작권을 침해한다며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경고장이 날아오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먼저 경고장을 보낸 사람이 해당 이미지나 문구의 저작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요청하고 외부 업체에 외주를 주었기에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여야 한다. 저작권법 위반도 ‘침해에 대한 고의가 없으면’ 처벌되지 않기 때문이다.

저작권 침해에서 중요한 창작성

저작권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든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 아닌 ‘창작성 있는’ 표현을 보호한다. 이에 ‘과연 어떤 표현이 창작성이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즉, 고소하는 측에서는 자신의 저작물이 독창성 있는 창작물이라는 점을 잘 부각해야 하며,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는 과연 고소인이 주장하는 것이 독창성이 있는 창작물로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지를 잘 살펴야 한다.

지식재산권 침해 손해액의 산정

저작권과 대부분의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그 손해액을 추정하는 방식은 유사하다. 먼저 실제 손해액을 고려하는데, 입증이 어렵다면 상대방이 얻은 이익을 손해로 추정한다. 이것도 어려우면 정상 계약 시 받을 수 있었던 저작권료나 실시료, 사용료 등이 손해로 추정된다. 모든 게 어려운 상황에는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가 적절히 손해액을 정할 수 있다. 결국,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고소하거나 고소 당한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꼼꼼히 따져보고 합의해야 할지 혹은 그대로 밀고 나갈지를 판단해야 한다.☎



글 전종원 변호사

Happy

행복이야기

여가&조이

인왕산과 북악산 자락을 끼고
도심 속 고즈넉함이 자리한다
- 취향 따라 걷는 서울 종로구 부암동
시크릿 산책

인터뷰

오십 넘어 천직 깨달아...
영원한 현역 꿈꿔요
- 국민배우 손숙

요리

포슬포슬
맛있는 감자

영화

눈을 감아도 보이는 것들
- 영화 <존 오브 인터레스트>가
남긴 질문들

HAPPY

행복이야기 - 여가&조이

인왕산과 북악산 자락을 끼고 도심 속 고즈넉함이 자리한다

취향 따라 걷는 서울 종로구 부암동 시크릿 산책

글·사진 엄용선 여행작가





서울 강북을 폭넓게 조망할 수 있는 무무대

울창한 수풀 속 싱그러운 풀 내음이 가득하다. 산자락 능선을 타고 아담하게 자리한 동네, 그곳의 골목은 오르락내리락 가벼운 리듬 속에 있다. 그 흔한 고층빌딩 하나 없이 평온한 눈높이의 시선, 옹기종기 어깨를 맞닿은 집들 사이로 미술관과 갤러리, 작은 가게들이 저마다의 개성으로 발길을 붙잡는다. 서울 속 숨겨진 청정 지대, 부암동에서의 시간은 유달리 느리게 흘러간다.

역사의 흔적이 곳곳에 만연한 무계정사길

수려한 자연경관, 문화·예술과 함께 유구한 역사가 숨 쉬는 동네, 그 미덕을 찾아 떠나는 여정의 시작은 '부암동주민센터'다. 경복궁역에서 출발한 초록색 버스가 자하문터널을 우회하여 청와대 길로 접어들자, 창문 너머 녹음이 울창하다. 부암동은 역사의 흔적이 곳곳에 만연하다. 그 중 '무계원'은 자연에 어우러진 한옥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안평대군이 꿈에서 본 도원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무계정사'에서 그 이름을 빌려왔다. 무계원 대문에 들어서자, 계단 위 경사진 부지에 고즈넉한 한옥 건물이 자리한다. 안채와 사랑채, 행랑채가 안마당을 둘러싸고 있는 형태로, 각 공간에는 시기마다 색다른 전시가 열리는데 특히 행랑채 상설전시관에서는 무계원의 기원이 되는 안건의 '몽유도원도' 영인본과 디지털 아트도 만날 수 있다. 길을 걷다 보니 어느새 '자하미술관'에 당도한다. 서울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미술관은 북악산을 내려다보는 비봉능선이 병풍처럼 펼쳐진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한다. 인근에는 한국 전통 목조각상과 다양한 석물을 볼 수 있는 '목인박물관 목석원'이 있어 함께 둘러보면 좋다.



경복궁 서쪽을 지나 인왕산과 북악산 자락을 끼고 있는 부암동



01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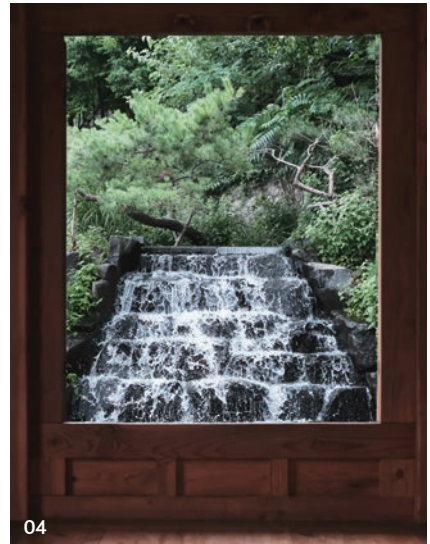


03

낮과 밤이 다른 부암동 동네 한 바퀴

산등성 대로변을 따라 아기자기한 가게들이 저마다의 개성을 뽐내며 여행자를 붙잡는다. '스코프'는 자타공인 부암동의 명물인데 영국인 남편과 한국인 아내가 함께 만드는 스콘은 투박한 겉모습에 진한 맛이 일품이다. 한국식 먹거리는 '동양방아간'이 꼭 잡고 있다. 손수 제조하는 떡을 매일 소량만 소박하게 내어놓은 좌판은 정겨운 동네 분위기를 완성한다. 이외에도 담쟁이덩굴이 전체를 감싸고 있는 2층의 건물에는 건강한 빵을 생산하는 '묘한빵집'과 슬로우 라이프 건강식을 지향하는 '데미타스'가 자리한다. '부암동 빙수'를 뜻하는 '부빙'은 수요미식회와 생생정보통에도 소개된 바 있는 유명한 곳이다. 대기는 필수이지만, 특유의 달콤함과 시원함이 긴 기다림을 기꺼이 감수하게 한다.

부암동에서의 특별한 순간은 거실 속 콘서트, '쌀롱드무지꼬'가 책임진다. 저마다 가지고 온 음료와 주류를 나누며 소통하는 시간은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한다. 북악산 1번 출입구 터널을 마주한 한옥 공간, '아트포라이프'는 심상치 않은 비주얼로 눈길을 사로잡는다. 벽면 가득한 사진 작품과 다양한 오브제, 오래된 나무 테이블 등 주인장의 취향을 오롯이 대변하는 공간에서는 카프레제, 스테이크 스투, 파스타 등을 맛볼 수 있으며 와인 리스트도 다양하다. 조금 더 힘을 내어 산길을 오른다. 카페 '희작'은 부암동의 떠오르는 '뷰 맛집'이다. 내부 통유리를 통해 조망하는 마운틴 뷰가 일품으로 하트 모양으로 뚫린 천장 역시 인증샷으로 자주 등장한다. 부암동에 밤이 찾아왔다. 온 동네 닭 튀기는 냄새가 진동하면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계열사'를 향한다. 전국 3대 치킨의 명성에 걸맞은 긴 대기야 필수지만, 한입 베어 문 후라이드는 '겉바속촉'의 진수를 보여준다. 낮과 밤이 다른 가게, '부암동 와플'은 밤이면 동네 주민들의 작은 술집으로 변모하며 대표 메뉴는 주인장의 사랑이 가득 담긴 '사랑 하이볼'이다.



04



05



한양의 사소문, 창의문에서 시작하는 인왕산 둘레길

한양의 사소문(四小門) 중 유일하게 조선시대 문루가 그대로 남아있는 '창의문'을 통해 서울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인왕산 숲길로 향해 '윤동주 문학관'과 '시인의 언덕'을 마주한다. 자기 고백적인 서정시로 사랑받는 저항 시인 윤동주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옛 수도시설을 개조한 건물은 총 3개의 전시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제 그의 생가 우물에서 가져온 맑은 목판과 사진, 친필 원고와 유품이 진열되어 있다. 문학관의 백미는 킴킴하고 축축한 공간에 내려오는 한 줄기 빛이 인상적인 제3전시실, '달힌 우물'인데, 시인의 생애 마지막을 지냈던 후쿠오카 형무소를 재현한 곳이다. 문학관 위 시인의 언덕에는 그의 대표작인 '서시'가 새겨진 바위가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다.

인왕산 자락길을 걷자, 숲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한옥 건물, '청운문학도서관'이 보인다. 본래 공원 관리사무소였던 건물은 지하층과 지상층으로 구분되며 한옥과 현대식의 조합이 인상적이다. 특히 이곳의 한옥 정자 '누정'에서 만나는 폭포는 사시사철 특별한 경관을 연출한다. 체력에 무리가 없다면 등산로를 올라 '인왕산 숲속 쉼터'를 찾아보자. 깊은 산속 작은 도서관은 평온으로 가득하여 소진된 체력을 금세 달래줄 것이다. 부암동 여행의 마지막은 전망대 '무무대'에서 보내본다. '아무것도 없구나. 오직 아름다운 것만 있을 뿐'이라는 비석의 글귀가 인상 깊은 무무대는 서울 강북을 오롯이 드러내며 시선을 압도하는 전망을 보여줘 낮은 물론, 일몰 시에는 더욱 근사하다.📍

01 카페 희작 내부 02 낮과 밤이 다른 가게, '부암동 외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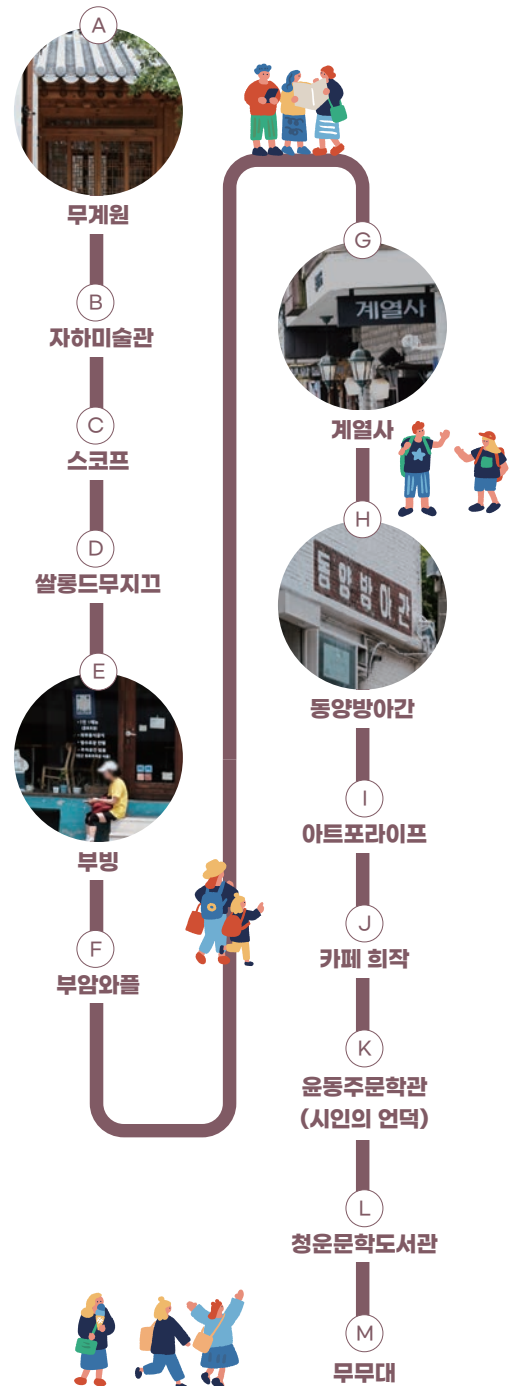
03 시인 윤동주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문학관 04 청운문학도서관 내부 정자에서 만나는 폭포

05 무계정사길 초입에 있는 무계원 06 깊은 산속 작은 도서관, 인왕산 숲속 쉼터

TRAVEL TIP

취향 따라 걷는

서울 부암동 시크릿 산책



오십 넘어 천직 깨달아... 영원한 현역 꿈꾸요

국민배우 손숙

연극 인생 61년. 인생의 3분의 2를 무대 위에서 보냈지만 여전히 공연이 설렌다. 배우 손숙(80)은 무대가 가장 편하고 연기할 때 활력이 넘치는 천생 배우다. 1963년 연극 '삼각모자'로 데뷔한 그는 '밤으로의 긴 여로', '어머니', '잘자요 엄마', '침향' 등에 출연하며 이해랑연극상, 은관문화훈장 등을 수상한 '연극계의 대모'이자 국민 배우다. 환경부 장관과 예술의전당 이사장을 역임한 문화계 인사이기도 하다. 지난해 배우로서 환갑을 맞이한 뒤 오히려 연기가 더 소중해졌다는 손숙을 연극 <햄릿> 공연장에서 만났다.

글 이은주 서울신문 기자 사진 신시컴퍼니 제공



배우로서 환갑... 무대는 여전히 떨리고 설레

늦었지만 데뷔 60년 축하드립니다. 61년째 무대에 서는 기분은 어떠신가요.

무대에 설 때 늘 떨리고, 설레는 마음이 더 커졌어요.〈햄릿〉같은 경우 지난번에 같이 했던 배우들 가운데 이번에 함께 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건강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으니까요. 매번 이번이 마지막 작품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무대에 오르다 보니 연기에 대한 간절함과 절실함, 그리고 사랑이 더 짙어지는 것 같아요.

〈햄릿〉은 60년 경력의 전설적인 배우들이 조단역을 맡고 후배들이 주인공을 맡아 화제가 됐는데. 혹시 아쉽지는 않으신가요.

저는 ‘배우2’라는 역을 연기했는데 고전은 무대에 설 때마다 주는 감동이 무궁무진해요.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는 재미가 있거든요. 배역의 크기와 상관없이 젊은 후배들이 마음껏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서 흔쾌히 출연했죠. 저는 지난해 데뷔 60주년 기념 연극 ‘토카타’의 주연을 맡았을 때 ‘이것으로 진짜 내 연극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앞으로 남은 연기 인생은 담고 보너스죠. 그래서 앞으로 어떤 배역이 주어지든지 내가 할 수 있는 한은 연기하고 싶어요.

인기 드라마 ‘나의 아저씨’, ‘더 글로리’에서도 짧지만 강한 여운을 남겼는데, 작품을 쉬지 않고 하는 원동력은? 저는 집에 가만히 있는 것 보다 현장에 나가는 것이 덜 아프고 덜 힘들어요. 일단 연극이 올라가면 몇 달간 버티기 위해 어떻게든 몸을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렇게 한 가지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다음 목표를 또 세워요. 1년에 연극 한 편씩은 꼭 출연하고 연극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영화나 드라마를 하려고 해요. 그렇게 용돈을 벌면 연극 하는 후배들 밥도 사주고요.

오십 넘어 배우라는 천직 깨달아

대학 때부터 연극을 하셨는데 혹시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하신 적은 없나요.

저의 원래 꿈은 현모양처였고 연극 배우로 평생을 살 것

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나이 오십까지도 그냥 좋아서 했고 연극 배우라는 투철한 직업 정신은 없었어요. 연극계가 워낙 어렵기도 하고 관객을 동원하는 것도 늘 스트레스여서 매 작품 마치면 그만두겠다고 푸념하다가 박정자 선생님께 야단을 맞곤 했죠. (웃음) 그런데 나이 오십이 넘어서 비로소 배우가 천직이라고 깨달았어요. 정말 늦게 철이 든 거죠.

어떤 계기를 통해서 천직이라는 확신이 드셨나요.



제가 환경부 장관으로 임명된 뒤 억울한 일을 겪고 그만두는 과정에서 너무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연출가 임영웅 선생님께서 대본을 내밀더니 ‘연극하자’고 하시는데 저는 도저히 연극을 할 상황이 아니라고 거절했죠. 그랬더니 임 선생님이 “손속은 연극 배우다. 연극 배우가 연극 말고 뭘 하나. 내일부터 당장 연습 나오라”라고 하시는데 뭔가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어요.

무너진 나를 일으켜 세운 것은 연극

그때 대본이 차범석 작가가 쓴 ‘그 여자의 작은 행복론’이었는데 그 작품이 무너진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연극이 위기에 빠진 저를 살린 셈이죠. 연극이 첫사랑처럼 느껴지고 비로소 연극이 내가 평생 가야 할 길이라는 확신



이 들었어요. 그때부터는 한눈 안 팔고 매년 무대에 섰어요. 어떤 면으로는 그때 힘들었던 시기를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요. 그런 일이 없었다면 여성 정치인이 됐을 수도 있는데 정치를 딱 그만두고 무대로 돌아오는 계기가 됐으니까요.

배우는 은퇴가 따로 없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직업인 것 같아요.

며칠 전에 뮤지컬<영웅>을 봤는데 안중근 역을 맡은 배우가 노래할 때 모든 관객이 그 사람만 집중해서 쳐다보는데 새삼 이런 직업이 어디 있을까 싶더라고요. 연극은 관객과 한 공간에서 호흡한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영화나 드라마는 배우가 아무리 연기를 잘해도 감독이 편집해버리면 그만이지만, 연극은 배우가 무대에 서는 순간에 아무도 올라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연극은 온전히 배우의 예술이죠. 그런데 매번 관객들을 몰입시키기 위해 무대를 장악해야 하고 매번 작품에 선택받아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기도 해요.

혹시 다시 한번 올리고 싶은 작품이 있으신가요? 연기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있으시다면요.

연극 '아버지와 나와 흥매와' 같은 경우는 개막하고 나서 몇 달도 안 돼서 코로나19 때문에 중간에 어이없이 막을 내렸어요.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아버지 역을 맡았던 신구 선생님께 그 작품을 다시 한번 하자고 이야기를 드렸죠.

솔직히 저는 50대에 임영웅 연출가님과 다시 연극을 한 이후 모든 작품이 다 행복하고 재미있고 즐거웠어요. 나는 배우로서 지금이 좋아요. 나이 드니까 되게 편안하고 좋은 것 같아요. 막 애쓸 일도 없고요. (웃음)

후배들이 성장할 때 가장 큰 보람 느껴

평소 후배들에게 어떤 조언을 하시는지.

특별한 조언보다는 먼저 모범을 보이고 연습실에서 같이 부대끼면서 지켜봐 주는 편이에요. 영화나 드라마는 6개월간 같은 작품에 출연해도 얼굴 한번 못 볼 때도 많지만 연극은 두 달간 10시간씩 붙어 있잖아요. 어린 친구들은 그 상황 속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성장을 해요. 처음에는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힘들어하던 후배들이 자신감을 느끼고 연극에 재미를 느낄 때 큰 보람을 느껴요.

평소 체력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공연 앞두고 두 달간 연습할 때는 특별한 일이 없는 날에는 늘 연습실에 매일 나와 10시간씩 앉아 있어요. 그게 체력 관리인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근육이 빠지기 때문에 나이 들수록 많이 움직여야 해요. 사람들도 만나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지내려고 해요.

매일 감사하고 행복하게 '소확행' 하세요

삶의 후반전을 앞둔 인생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매일 아침 '남의 말 하지 말자'고 되뇌고 나름의 품격과 향기를 지닌 사람이 되자고 다짐하고 집 밖을 나와요. 우리는 너무 '나중'을 생각하고 사는데, 살아보니 솔직하게 나중은 없더라고요. 하루하루 감사하고 행복하게 사는

'소확행'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마음도 너그러워지고 내려놓게 돼요. 늘 많이 웃고 주변을 품으면서 사세요. (웃음)

앞으로 맡고 싶은 배역이 있으신가요? 어떤 배우로 기억되고 싶으신지.

고(故) 윤정희 배우가 출연했던 이창동 감독의 영화 <시>를 굉장히 인상 깊게 봤어요. 제 나이대에 맞는 역할이면 한번 도전해 보고 싶어요. 저는 화려한 수식어보다 많은 분들이 늘 주변에 있는, 주어진 역할 열심히 하는 현재 진행형 배우라고 생각해 컸으면 좋겠어요. 배우는 무대에 서는 순간까지 현역이니까요.☺



맛있는 감자 포슬포슬

감자는 겸손하다. 투박한 외모만 놓고 보면 별게 없어 보인다. 하지만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 흉년이 들 때면 사람들에게 소중한 먹거리가 돼줬다. 보기와는 달리 각종 영양소도 꼭꼭 눌러 담고 있다. 이번 달은 제철을 맞은 감자의 진가를 알아보자.

자료제공 전원생활



*노키는 주로 감자에 밀가루를 섞어 반죽을 만든 후 버터·치즈에 버무려 먹는 이탈리아의 파스타 요리다.

허브버터 감자노키

준비하기(2인분) 감자 2개(300~350g), 중력분 100g, 소금 2큰술, 버터 30g, 타임 2줄기, 로즈메리 2줄기, 사워크림 30g, 그라나 파다노 치즈 10g, 적후추 ½ 작은술

만들기 1 끓는 물에 감자를 30분간 삶은 후 껍질을 벗긴다. 2 포크로 ①을 으깨고 소금 1큰술을 넣은 뒤 체를 친 중력분을 넣는다. 가루가 잘 섞일 정도라면 반죽한다. 3 ②를 3등분으로 나눈 후 손으로 반죽을 길게 민 후 일정한 크기로 자른다. 4 포크를 찍어 모양을 낸 ③을 소금 1큰술을 넣은 끓는 물에서 2분간 삶은 후 건진다. 5 중불로 예열한 팬에 버터를 녹인 후 타임·로즈메리를 넣고 1분간 볶는다. 6 ⑤에 ④를 넣고 2분간 볶는다. 7 ⑥을 그릇에 담은 후 사워크림, 얇게 썬 그라나 파다노 치즈, 적후추를 뿌려 마무리한다.

사과보다 비타민C 2배 이상 많아

감자의 주성분은 당질(탄수화물)이다. 하지만 열량이 낮고 포만감이 커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 100g 기준 열량은 70kcal이다. 다만 튀겨 먹으면 열량은 4배 이상 높아진다. 감자는 비타민C가 풍부해 프랑스에서는 '땅속의 사과'로도 불린다. 사과와 비교했을 때 유해산소 제거를 돕는 비타민C가 두 배 이상 많다. 무엇보다 감자의 전분이 보호막 역할을 해 열을 받아도 손상되지 않는다. 감자는 사과보다 칼륨도 약 3배 많아 고혈압 환자들에게도 좋다. 나트륨을 체외 배출시켜 혈압조절을 돕는다. 감자를 구매할 땐 눈 자국이 얇고 알이 단단한 걸 택한다. 수박처럼 손으로 두드렸을 때 '톡' 소리가 나는 게 육질이 좋은 감자다. 껍질에 주름이 있거나 색깔이 녹색으로 변한 건 오래된 것이니 피하자.🍆



Recipe



으깬감자구이

준비하기(1인분) 알감자 8개, 소금 1큰술(삶기용), 올리브유 3큰술, 소금 1작은술, 후추 ¼작은술, 파프리카 파우더 1작은술, 다진 이탈리아인 파슬리 3g, 렌치 소스(마요네즈 3큰술, 사워크림 2큰술, 다진 양파 1큰술, 다진 마늘 ½큰술, 홀그레인 머스터드 ½큰술, 다진 딜 5g, 소금 ¼작은술, 후추 ¼작은술), 치미추리 소스(다진 이탈리아인 파슬리 10g, 다진 마늘 1큰술, 식초 2큰술, 올리브유 1큰술, 레몬즙 ½큰술, 올리브유 3큰술, 으깬 적후추 1큰술, 소금 ½작은술, 후추 ¼작은술)

만들기 1 소금 1큰술을 넣은 끓는 물에 알감자를 20분간 삶는다. **2** 올리브유 1큰술을 두른 오븐 팬에 삶은 감자를 올린 후 넓은 수저로 으갠다. **3** 으깬 감자 위에 올리브유를 바른 후 소금, 후추, 파프리카 파우더를 뿌린다. **4** 180℃로 예열한 오븐에 ③을 20~25분간 굽는다. **5** ④에 다진 이탈리아인 파슬리를 뿌려 완성한다. **6** 기호에 따라 두 가지 소스 중 하나를 곁들여 먹는다.



알리고 감자스테이크

준비하기(2인분) 알리고 감자(감자 2개(300~350g), 모차렐라 치즈 150g, 우유 100ml, 버터 20g, 소금 ½작은술, 후추 ¼작은술), 스테이크(채끝살 200g, 소금 1작은술, 올리브유 4큰술, 후추 ½작은술, 샐러트 2개, 아스파라거스 2개, 미니 파프리카 1개)

만들기 1 껍질을 벗긴 감자는 3cm 크기로 깍둑썰 후 끓는 물에 15분간 삶는다. **2** 삶은 감자를 체에 으개서 곱게 만든다. **3** 냄비에 ②와 우유·버터·소금·후추를 넣고 중약불에서 잘 섞어준다. **4** 부드럽게 섞었으면 치즈를 두 번에 나눠 넣어 녹인 후 알리고 감자를 완성한다. **5** 센불로 예열한 팬에 올리브유 4큰술을 두르고, 소금·후추를 뿌린 채끝살의 앞, 뒤, 옆면을 각 1분씩 굽는다. **6** ⑤를 실온에 2분간 두고, 고기를 구운 팬에 반으로 썬 채소류를 노릇하게 굽는다. **7** 접시에 ④, ⑤, ⑥을 올려 마무리한다.

눈을 감아도 보이는 것들

영화 <존 오브 인터레스트>가 남긴 질문들

어디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안다. 1942년부터 독일은 6곳 절멸수용소에서 체계적으로 대량학살을 수행했다. 1,000곳이 넘는 다른 강제수용소에서도 수백만 명이 죽었다. 그러니까 악은 도처에 있었다. 이 끔찍한 학살을 자행한 사람들의 평범하고 덩덤한 얼굴을 클로즈업한 영화 <존 오브 인터레스트>는 홀로코스트를 넘어 악의 깊은 얼굴을 들여다보려고 한 영화다. 깊은 어둠 속에서.

글 남은주 번역가, 자유기고가 사진 영화사 찬란 제공





보고 싶다, 보고 싶지 않다

영화가 시작하면 몇 분 동안 화면은 깜깜한 채 소리만 들린다. 이상한 전자음을 들으며 관객들은 꼼짝없이 앉아 있어야 한다. 아우슈비츠 담장 너머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평화롭게 일상을 영위하는 영화 속 가해자가 이런 상황이었을까? 아니면 옆에서 동료가 죽어가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어둠에 갇힌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피해자들이 이런 기분이었을까? 홀로코스트 영화들은 실제 했던 비극을 정확히 묘사하면 할수록 폭력의 스펙터클을 만들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관객들은 잔인한 역사적 장면들을 흥미롭게 보고 나서 떨거나 울기도 하지만 영화관을 나오면서는 훌훌 털어버리곤 한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관객들은 먼저 어둠 속에 앉아 정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고 싶은지, 왜 보고 싶은지를 생각해야 한다.

누구라도 그랬을 거라고?

누가 이런 일을 벌였는지 안다. 영화는 실제 아우슈비츠 소장이었던 루돌프 회스(크리스티안 프리델), 회스의 아내 헤트비히(산드라 휠러)와 5명의 아이들 등 실제 수용소 관사에 살았던 회스 가족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카메라는 한 번도 수용소를 비추지 않고 오로지 학살 현장 옆에서 행복한 가정을 일궈 나가는 그들의 모습만을 그린다. 영화에는 나오지 않지만, 회스는 나중에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소에서 “작업은 비밀을 유지해야 했지만, 계속 시체

를 소각하면서 나오는 악취와 구역질나는 탄 냄새가 근방 지역에 완전히 배어버려서 결국엔 모두가 아우슈비츠에서 학살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증언한다.

그러나 영화 <존 오브 인터레스트> 속 인물들은 아우슈비츠 담장 바로 옆에 살면서도 밤낮으로 사람들을 실어 나르고 아무도 밖으로는 데려가지 않는 기차와 썰 새 없이 시신을 태우는 연기가 그들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처럼 행동한다. 윤기 흐르는 살림과 정원의 수영장과 화려하게 핀 꽃들만 눈에 들어오는 것처럼. 혹은 사람들의 비명과 총소리가 계속 담장을 넘어오는데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처럼. 하지만 회스는 누군가에게서 빼앗았을 모피코트를 걸쳐보고, 아이들은 금니를 공깃돌처럼 갖고 논다. 사실 그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 철저히 고개를 돌리고 있을 뿐이다. 스티븐 스피버그 영화 <썬들러 리스트>에서는 만행을 저지르는 역할을 맡은 아우슈비츠 장교가 결국 자살한다. 우리가 인간성에 대해 가진 상식이다. 그러나 <존 오브 인터레스트>에서는 소장의 부인 헤트비히가 ‘아우슈비츠의 여왕’이라는 자신의 별명을 자랑스러워하는가 하면 다른 지역으로 인사 발령이 나자 가지 않겠다고 버티기도 한다. 나치 고위 장교들은 자동차의 새로운 모터 기관을 연구하듯 더 많은 사람들을 신속하게 죽이고 태울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 토론하며 회스는 헝가리 유대인들을 대량 수송, 집단 학살하는 작전이 자신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다고 자랑스러워한다. 마치 커다란 성과를 낸 직장인처럼 말이다.



다른 비명을 듣기 위하여

이 역사가 어떻게,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한다. 영화에서처럼 실제로도 회스의 마당과 아우슈비츠 주변 동네는 꽃들이 화사하게 피어나고 토지가 비옥한 곳이었다고 한다. 시신을 태운 재들을 아낌없이 비료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 눈에 아우슈비츠는 ‘풍요의 땅’처럼 보였던 것이다. 어찌 보면 다른 동물의 멸종과 생태계의 집단적인 파괴를, 먼 나라의 노동과 환경파괴를 모른 척하면서 풍요를 즐기는 지금의 우리와도 비슷하다. 보지 않으려면 보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영화는 홀로코스트만이 아니라 다른 생명에 대한 학살로 풍요와 소비를 유지하는 ‘육식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처럼 보이기도 한다. 아니면 가자지구에서, 또 다른 나라에서 쉬지 않고 기어들어 오는 분쟁과 폭력의

증거를 모르는 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에 대한 비판처럼 보이기도 한다.

〈존 오브 인터레스트〉는 칸 영화제 그랑프리, 아카데미 국제영화상을 받았다. 홀로코스트 영화로 상을 받은 조나단 클레이저 감독은 시상식 무대에서 홀로코스트의 비극과 유대인 정체성이 가자지구 점령에 이용당하는 현실을 비판했다. 감독이 몸을 떨며 한마디 한마디를 이어가는 동안 박수와 야유가 엇갈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전 세계에 전해졌다. 지금 서구에선 가자지구 참상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저명한 석학들이 대학에서 자리를 잃고 공개비판을 당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이 영화는 ‘그들이 그때 무엇을 했는지 봐라’라고 말하려던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을 보라’는 뜻”이라는 것이 조나단 클레이저 감독의 말이다.🎬



꽃 자산관리의
꽃을 피우다

NH NH100

종합자산관리센터

금융 · 세무 · 부동산 · 은퇴설계 등
고객님의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해드리는
자산관리(Wealth Management)
특화영업점입니다.

| 2024년 WM특화점포 (총 69개소)

경기	경기영업부	031-230-3800	전남	순천시지부	061-723-6300	서울 (강서)	목동역금융센터	02-2699-1701					
	안양시지부	031-380-0800		전남영업부	061-289-7801		사당동지점	02-587-0291					
	성남시지부	031-751-0161		여수금융센터	061-682-5151		서초동지점	02-584-0117					
	평택시지부	031-653-7100		순천금융센터	061-752-3134		공향동지점	02-2664-2711					
	의정부시지부	031-878-0100		경북	상주시지부		054-537-2200	부산	부산영업부	051-802-5206			
	안양호계금융센터	031-451-2680			포항시지부		054-247-2941		운천동지점	051-553-5363			
	용인시지부	031-332-2181			안동시지부		054-854-3311		부산대학교지점	051-512-0715			
	안산시지부	031-401-0640			영주시지부		054-635-3021		마린시티금융센터	051-744-5601			
	NH금융PLUS 분당센터	031-703-8600			경남		창원시지부		055-263-6270	대구	수성동지점	053-754-9531	
	오산시지부	031-372-1101					경남영업부		055-284-9526		대구중앙금융센터	053-256-2516	
김포시지부	031-982-1921	진주시지부	055-830-3333			대구중동금융센터	053-761-3380						
과천시지부	02-507-2131	김해시지부	055-334-5111			부평금융센터	032-510-8600						
강원	강원영업부	033-254-5071	제주시지부			064-746-1117	인천		송도시티지점		032-851-9130		
	강릉시지부	033-641-3801	제주			노형금융센터			064-746-6111		연수금융센터	032-818-3674	
	원주시지부	033-730-8000		제주금융센터		064-751-5747		광주	상무금융센터		062-384-2181		
충북	충북영업부	043-252-6579		대전동지점		02-567-0654	봉선동지점		062-653-2185				
	가경동지점	043-233-4211		서울 (강남)		서울영업부	02-483-2711		풍암동지점		062-682-8152		
	충북대학교지점	043-265-5101		서울 (중앙)		강남중앙금융센터	02-538-8151		대전		대사동지점	042-229-6560	
충남	천안시지부	041-561-3611			연신내지점	02-359-4601	오정동지점			042-625-4282			
	서산시지부	041-669-3530			마포금융센터	02-715-4491	울산			울산영업부	052-258-4402		
	아산시지부	041-544-2134			종로금융센터	02-733-7001				세종	NH금융PLUS 세종영업부	044-863-6101	
전북	삼천동지점	063-221-4744			서울 (강북)	성동금융센터					02-2293-4171	본점영업부	02-2014-1428
	전북영업부	063-237-5090				직할					서울대학교지점	02-889-8174	서울대학교지점
	군산시지부	063-452-9600											

New Happiness

은퇴설계 행복하게

은퇴설계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객님의 은퇴목표를 설정, 자산현황을 진단하고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 받으세요!

새100플랜

NH농협은행



QR코드를 스캔하면 새100플랜 2024 가을호를
웹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